

시론

정치의 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자



퇴허자

광주대각사 주지·제주퇴허자명상원장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맨드롱의 봄, 분명한 봄은 분명히 우리 곁을 스쳐 갔다. 유채꽃과 벚꽃이 피어난 화사한 제주의 봄은 바람과 함께 육지로 이미 날아갔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경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의 봄은 아직은 것 같지가 않다. 이는 마치 왕소군(王昭君)이 오랑캐 땅에 끌려가 원제(元帝)를 그리워하며 시로 남겼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다르지 않다. 봄이 왔어도 봄이 봄 같지 않은 까닭은 우리들의 마음에 뭉개봄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와 관련한 체감도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는 패거리 정파를 보면서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어온 수많은 적폐들, 그리고 정경유착의 비리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에다 설상가상으로 몰아닥친 경제불황 등으로 우리 시민들은 정말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국민들은 삼년 종든 매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를 치르는데, 지난 4·10 총선의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고민은 국민들의 몫이었다. 막스웨버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신체 부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으로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설파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말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봄이 왔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봄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정치 역시 국민의 심기가 먼저 편안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최종목적은 아무래도 국민행복이다. 그래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게티스버그에서 행해졌던 아브라함 링컨 전 미국대통령의 명연설이 아직도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는 모르다. 왜 우리는 링컨이나 또 오바마와 같은 국민들의 신뢰를 감동적인 정치로 되돌려 주는 역대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의인(義人)을 만나려면 우선 나부터 의인이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의 양심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의로움은 탄생한다. 요즘 사회적 관심이 경제나 안보보다 정의가 가장 우선순위로 부각된 데에는 다 그러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삭발집회나 촛불집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정치권과 국민간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특검이나 현재의 탄핵결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래도 월드컵경기 때 맛보았던 그 정도의 환희심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어차피 정치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의 울타리 안에서 전개되는 예술이다. 그 중심에 주인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살아 있다면

언젠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어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직 국민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탄식하는 사람들도 보았는데 그런 수박에 없다고 본다. 정당정치의 특색중의 하나가 개인의사보다 당략적인 정책과 집단결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인공지능인 알고리즘의 뛰어난 실력, 정치인들은 나름 프로들이라 자처하지만 아직은 이세대의 실력쯤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580여 차례에 이르는 숭한 외래의 침탈과 질곡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대한민국의 내공을 나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싶다.

사르트르(Sartre)는 우리인생을 가리켜 "B(Birth:탄생)에서 D(Death:죽음)에 이르기까지 C(Choice:선택)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B(탄생)에서 D(죽음)에 이르기까지 C(Challenge:도전)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를 정치에 대입한다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도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가령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봄을 기다리지 말고 봄을 내 안에서 찾고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 말이다. "봄은 언제나 와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안에서 꺼내 쓰면 되는 것으로, 곧 춘래불사춘(春來非不似春) 봄이 왔으니 봄 아닌 것이 아니네!" 이렇게 말이다.

社說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기관 변경 불통행정이라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기관 변경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시의회가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올해부터 다시 비엔날레재단에서 맡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05년 창설됐으며 비엔날레와 교차해 출수 해에 열린다.

의회에서는 소통 부재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조직·예산 등 이관에 대해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강 시장 독단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문제 삼았다. 심창욱(무소속·북구5) 의원은 "이탈리아 출장에 디자인진흥원 직원도 디자인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동행했는데 조율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TF회의는 불과 한 달 새 이뤄졌고 결과 또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왜라는 일명 '답정너' 용역

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에 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용주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예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는 디자인진흥원 설립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유 목적이 약화해 산업·공공디자인 융합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엔날레와 함께 디자인비엔날레는 문화수도 광주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 사전 공감대 형성이 선결 요건으로 보인다. 시의회를 배제한 불통, 독주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참모도 안타깝다. 광주시도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주관기관 변경은 중대 사안이다. 손바닥 뒤집듯 없어선 안 된다. 폭넓게 여론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라는 것이다.

전남 도서지역 병원선 국비 지원 반대하는 이유 뭐가

전남도는 섬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해 1971년 병원선 512호를 도입했다. 2003년부터는 동·서부권을 511호와 512호 2척으로 나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만232명을 진료하고 3천733명에게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등도 제공했다. 도내 유인도서는 271곳이며, 이 중 보건진료소만 설치된 취락지가 32개소, 시설이 전혀 없는 무의도가 무려 135곳에 달한다.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병원선이 건강과 직결되는 셈이다. 가장 먼 왕도 보길도에 순회 진료를 갈 때면 편도로 6시간이 걸린다. 최대 3박4일까지도 바다 위에서 지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의료진이 사명감으로, 또 보람을 갖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선박 점검·수리비 뿐이며, 이마저도 67%에 그쳤다. 자체적으로 1999년만원(86.8%)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인천시, 충남도, 경남도 등 병원선을 보유한 지자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국비 필요성을 건의했고, 특히 2003년부터 중단된 유류비 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허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선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도심에선 집 앞 편의점만 가더라도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의 상비약 구매도, 백신 접종 및 건강 검진 등의 간단한 진료조차 불가능하다. 섬 주민이 제공받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로 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선이 오는 날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며 웃을 짓는다. 도서벽지에서 '생명줄'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기고



문병애

한중경제인친선협회장

도로의 기본적 기능은 이동과 접근 기능이지만, 최근에는 확장된 사회경제적 역할, 공간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즉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욱 다양하고 중요시된다. 단순히 연결로의 기능뿐 아니라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단적인 예이다. 특히 일반 도로도 아닌 국도, 그것도 국도 1호는 그 상징성이 매우 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그 지역활성화 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현대에는 국도개발이 효율성만을 최고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골 오지는 물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도 무시 못하고, 그곳에 사는 소수의 주민도 우리와 같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듯 알아도 불편하고 미흡한 요소가 많은 국인데 인프라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더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국도 1호선 기점을 현 목포에서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전남 서남해안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의 해남 땅끝 연장 필요

국도1호선 기점 변경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정부에서도 선물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도 1호선은 '목포-신의주'를 잇는 노선으로, 현재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이었고,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대교의 건너편인 고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된 바 있다.

국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1조 제3항)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할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할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경전선의 육륙국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광주-해남-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 국도 7호선의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 사업 등과 맞물려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남군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 해남노선 연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맞춰 기점을 연장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또 국도 1호선 끝이 땅끝이라는 상징성도

갖게 되고,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고, 도로 기점의 현대적인 의미 면에서도 맞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도 공간도 변하고 도로의 기·중점도 바뀌어 가는 게 당연하다.

목포에서 해남 땅끝까지 가는 노선에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치하는 관광지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역사 문화 유적, 산업 지역, 생산 지대, 다도해 연안 지대 등이 지원의 연결로 지역 활성화와 함께 국도 1호선의 상징적 의미인 북쪽 끝 신의주와 남쪽 끝 해남 땅끝이 비로소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

해남군에서도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연구가 나왔으면 한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변 자치단체와 전남도가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남과 목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북, 충남, 경북, 인천의 활성화와도 관계된다. 관련 지자체들의 도움과 지원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적극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이나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든 이유만으로 사업 선정에 차질을 빚게해서는 안 된다. 국도의 어디에 살든 접근성을 제고시켜줘야 한다. 지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이제는 국토 균형개발이란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일수록 낙후지 개발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독자투고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기념하는 달 중 하나이고 이는 세계적으로는 'International Day of Families'라고도 불리며, 1993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

이날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하고 이를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 시킴으로써 정서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노출도 아동학대입니

다. 가정폭력 노출도 아동학대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만3천532건에서 2022년 4만4천531건으로 32.8%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서학대에는 가정폭력 노출도 포함되므로 이제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로만 여겨서는 절대 안되며 자녀들에게 노출됐을 때는 아동학대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언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자녀에게 노출시켜 정서학대로 입건된 사례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남편

이 목욕을 하며 집기 등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학대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경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 일환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매체(버스정비기, 대형전광판, 현수막 등)를 활용해 범시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두가 노력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영주·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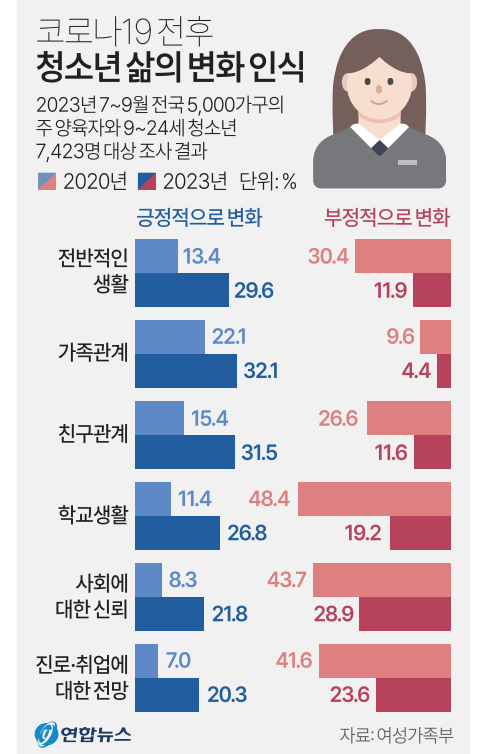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엔데믹에 구김살 펴진 청소년...삶 만족도·긍정 인식 커졌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친구·가족관계와 학교 생활 등 청소년의 대부분 일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전국 5천가구의 주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천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이전 조사인 2020년(13.4%)보다 16.2%포인트 늘었다.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21%에서 32.1%로,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5.4%에서 31.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서 26.8%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서 21.8%로 각각 늘었다.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도 7.0%에서 20.3%로 증가했다. 청소년이 잘 산다고는 느끼는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10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2점 올랐다. 이번엔 처음으로 조사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준(4점 만점)은 9-12세 2.84점, 13-18세 2.77점, 19-24세 2.83점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시련 등 심리·정서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7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